

트럼프의 달러화 약세 의지 강화  
:유로존 선거와 브렉시트 달러화 약세 제한적

Global Strategist 김호윤(2168-7491)/유동기(2168-7497)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의 무역정책 공약 구체화에 따른 달러화 약세 의지 강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통상정책 주목 필요. 달러 대비 엔화 약세 제한 요인 작용. 유로존 내부의 선거와 브렉시트 또한 엔화약세와 달러약세 폭 제한 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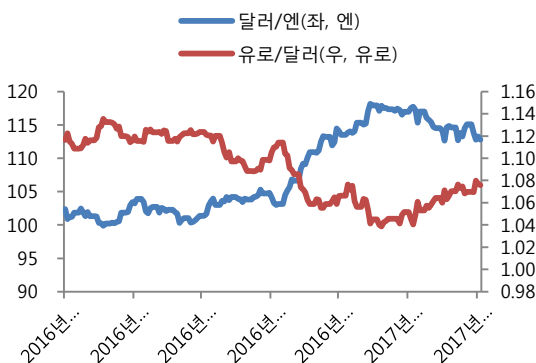
■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화 약세 의지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TPP탈퇴와 NAFTA 재협상을 선언하며 미국우선의 무역정책 공약 구체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을 지목해 자국 통화가치 절하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 달러화 약세 유도를 통한 무역적자 문제 해소와 미국 내 제조업 부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10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 압박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자동차 무역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며 미국과 일본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4월 환율보고서를 통한 엔화가치 절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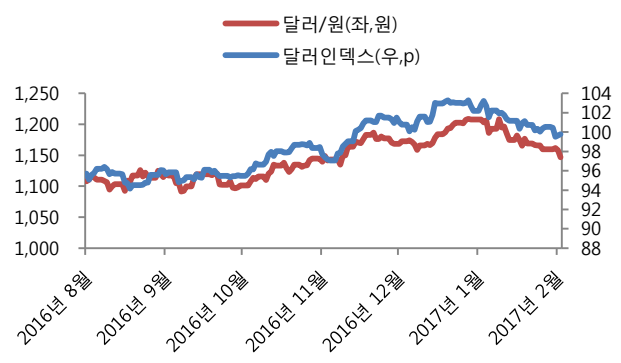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치 절하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달러화 약세를 유도. 달러화 약세에 따른 엔화의 통화가치 상승이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 또한,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있는 일본의 엔화가치 절하는 제한 요인으로 작용. 또한, 3월 영국의 브렉시트 리스본 50조약 발동 가능성과 유로존 내부의 선거 일정 등을 앞두고 안전자산으로써의 엔화수요 증대로 엔화의 약세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하며 트럼프가 유도하는 달러화 약세 또한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그림1] 엔화가치 절하는 제한적



자료: Bloomberg, KR선물

[그림2]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 강세우려로 달러 약세 진행중



자료: Bloomberg, KR선물